



다른 지역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버스형 케이블카.

‘갯바위 케이블카’ 설치 이뤄지나

동구주민등 중심 추진위 재발족 환경단체도 긍정 검토 기대높여

대구시와 환경단체간에 마찰을 빚으면서 무산됐던 팔공산 갯바위 구간 케이블카 설치가 재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대구 동구청과 동구 공산동주민자치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관음사 주지스님을 비롯해 주민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팔공산 갯바위 구간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추진위원회(가칭)’가 발족됐다.

이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 추진위는 추진 기본계획서를 만들고 대구경북연구원어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용역조사를 의뢰해 늦어도 3월 중순께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본 계획에 따르면 추진위는 동구 능성동 집단시설 지구~갯바위 인근 노적봉 남편 1.1km 구간에 안전성이 높은 ‘로프웨이’라고 불리는 대형버스형 케이블카를 설치, 운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류장 2곳과 철탑 4곳을 세우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건립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이와관련 대구 동구청도 케이블카 설치는 갯바위 주변 동구 주민이 수년 전부터 건의해 왔고 지역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도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한 점을 들어 팔공산권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블카 설치에 지난 1982년에도 거론됐으나 당시 공원위원회 자문결과 자연경관훼손 등을 들어 부적격 결론이 내려져 계획이 무산됐었다.

그러나 최근 케이블카 설치에 가장 큰 걸림돌이 돼 왔던 환경단체가 외국의 경우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팔공산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이 경산에서 갯바위에 오르는 20여분 밖에 걸리지 않는 코스를 선호해 대구쪽 관광객이 갈수록 줄고 있는 점도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재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응재 갯바위 케이블카 추진위원장은 “환경논리에 밀려 케이블카 설치를 무작정 미룰 수 만은 없다”면서 “팔공산 갯바위 구간어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주변 자연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있고 동구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팔공산 자락 850m에 위치한 갯바위는 관봉석조 여래좌상(높이 4m, 보물 431호)으로 불리며 정성을 다해 불공을 드리면 한가지 소원은 들어준다는 속설에 따라 입시철에는 하루 수만명의 인파가 몰리고 있다.

김덕용기자 zpel@idaegu.co.kr